

[묵상과 영적성숙]

② 묵상과 예수님 /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하여

강준민 목사 / 1998 / 페이지수: 2

예수님의 묵상

예수님의 영적 승리의 비결은 말씀 묵상에 있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총만하셨다. 입을 벌리면 말씀이 나왔다. 진리가 나왔다. 예수님은 말씀 하시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셨다.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물고기가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말씀 전하는 일이 자연스러웠다. 말씀이 그분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제자 마태는 산상 수훈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마 5:1,2)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진리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었고, 그분이 입을 여셨을 때 진리가 그냥 흘러 나왔던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가득 찰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었을까? 그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던가? 진리로 가득 찰 수 있었던 비결이 그러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 묵상이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음 가득 채우기 위해서 훈련하셨다. 저절로 말씀이 가슴에 차는 것이 아니다.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말씀이 마음에 채워져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마 12:34,35)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을 마음에 쌓느냐에 따라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그 운명이 달라진다.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말씀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삶은 말씀 자체이었다.

예수님처럼 되는 길은 예수님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을 사랑하셨고 그 말씀을 읽으셨다. 열두 살 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말씀을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 예수님은 또한 성경을 암송하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우리는 시편 22편에서도 볼 수 있다. 시편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그분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셨다. 생애 한 순간 한 순간을 구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말씀을 따라 사셨던 것이다(마 26:52~54, 눅 24:44).

묵상된 말씀이 승리의 해

예수님은 말씀을 암송하셨을 뿐만 아니라, 암송하신 말씀을 묵상하셨다.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뜻을 깨달으셨고, 그 말씀을 어느 때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알고 계셨다.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말씀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급하게 성경을 찾지는 않으셨다. 이미 암송하고 계시던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탄을 거뜰히 물리치셨다. 묵상을 통해서 적절하게 선별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셨던 것이다. 그럴 때 그 말씀은 성령의 섬이 되는 것이다(엡 6:17).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묵상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쓰인 말씀 자체를 능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탄도 말씀을 사용했다. 문자는 죽이기도 한다(골 2:14).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묵상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성령에 의해 조명되고 깨우쳐질 때 비로소 능력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성령 안에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마음을 진리로 가득 채우자. 입을 벌리기만 하면 저절로 진리가 나올 때까지, 우리의 모습이 곧 진리가 되기까지...

* 출처 : 도서출판 두란노